

S&P 500 분기 실적 시즌 모니터 26.09.14

실적시즌 막바지, 영업이익 미달

조재운 AI Engineer. jaeun.jo@daishin.com · 2026.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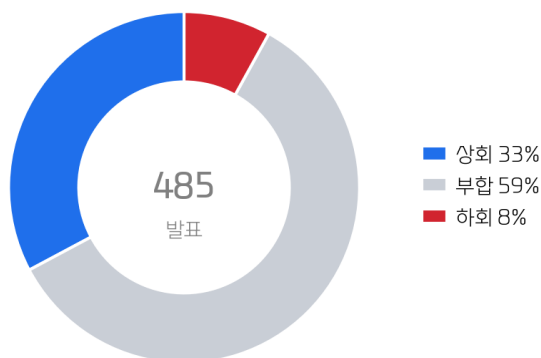
1. 발표 진행도

전체 발표 진행률은 종목수 기준 96.0%, 시가총액 기준 95.6%다. 헬스케어·에너지·유틸리티·부동산·통신서비스 5개 섹터는 이미 100% 발표를 마쳤다. 금융은 종목수 기준 96.1%인데 시총 기준으로는 87.2%에 그쳐 8.9%p 벌어져 있는데, 이는 대형 금융주 일부가 아직 발표 전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일반소비재는 종목수 진행률(89.4%)이 시총 진행률(97.4%)보다 8%p 낮아 대형주가 먼저 발표되고 소형주 발표가 지연되는 구조를 보인다. 지난주(9/8~9/11)는 정보기술 대형주(오라클·어도비)와 필수소비재(크로거·케이스시스템)가 집중 발표되며 두 섹터 진행률을 끌어올렸으나, 필수소비재(88.2%)는 여전히 전체 섹터 중 진행률이 가장 낮다.

S&P 500 실적 발표 현황							
섹터	기업수	발표수	진행%	진행%(시총)	상회%	부합%	하회%
S&P 500	503	483	96.0	95.6	32.9	59.4	8.1
헬스케어	59	59	100.0	100.0	37.3	61.0	5.1
에너지	21	21	100.0	100.0	57.1	38.1	4.8
유틸리티	31	31	100.0	100.0	25.8	51.6	22.6
부동산	30	30	100.0	100.0	36.7	36.7	26.7
통신 서비스	24	24	100.0	100.0	41.7	41.7	16.7
금융	76	73	96.1	87.2	30.1	65.8	4.1
소재	25	24	96.0	98.4	33.3	45.8	20.8
정보 기술	73	70	95.9	95.1	41.4	58.6	0.0
산업	83	79	95.2	96.1	29.1	65.8	5.1
일반 소비재	47	42	89.4	97.4	19.1	73.8	7.1
필수 소비재	34	30	88.2	86.8	20.0	76.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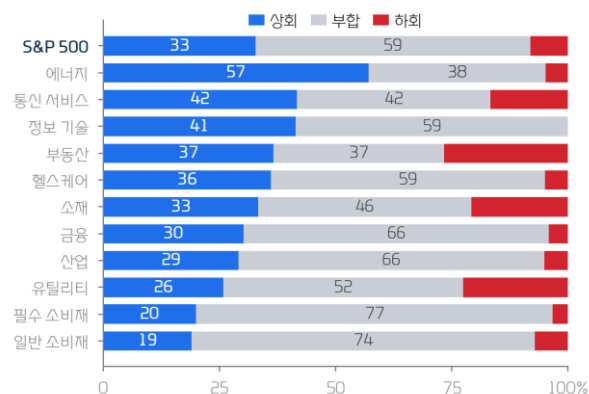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 발표 결과 분포 (상회·부합·하회)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섹터별 상회·부합·하회 분포 (% , 발표 완료분 기준)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지난주 주요 발표 기업

지난주 시총 최대 발표 종목은 오라클(4,544 억달러)로 EPS 2.0 달러가 컨센서스 1.9 달러를 상회했음에도 부합으로 분류됐고, 어도비·크로거·코파트·쿠팡컴퍼니즈도 모두 부합에 그쳤다. 필수소비재의 케이시스제너럴만 상회로 분류돼 지난주 대형주 발표 중 미스는 없었지만, 상회 역시 케이시스 한 종목뿐이었다.

지난 주 실적 발표 주요 기업								
티커	종목	시총(\$B)	섹터	발표일	매출(\$B)	발표 EPS (\$)	컨센 EPS (\$)	EPS 서프 (%)
KR	크로거	34.9	필수 소비재	09-11	38.5	\$1.25	\$1.24	1.3
ORCL	오라클	454.4	정보 기술	09-10	19.2	\$1.99	\$1.89	5.6
ADBE	어도비	100.3	정보 기술	09-10	6.7	\$6.02	\$5.91	1.8
CPRT	코파트	27.7	산업	09-10	1.2	\$0.38	\$0.39	-3.7
COO	쿠팡컴퍼니	10.3	헬스케어	09-09	1.1	\$1.17	\$1.11	5.3
CASY	케이시스	22.7	필수 소비재	09-08	5.3	\$6.37	\$5.60	13.7

EPS 서프 = 미실현 지분평가손익 등 특이항목 제외 정상화(B/E/S) 기준.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개별 종목 실적 발표 결과

티커	기업명	EPS 예상→발표	EPS 서프	매출 서프	발표일 등락
ORCL	오라클	\$1.74 → \$1.92	+10.4%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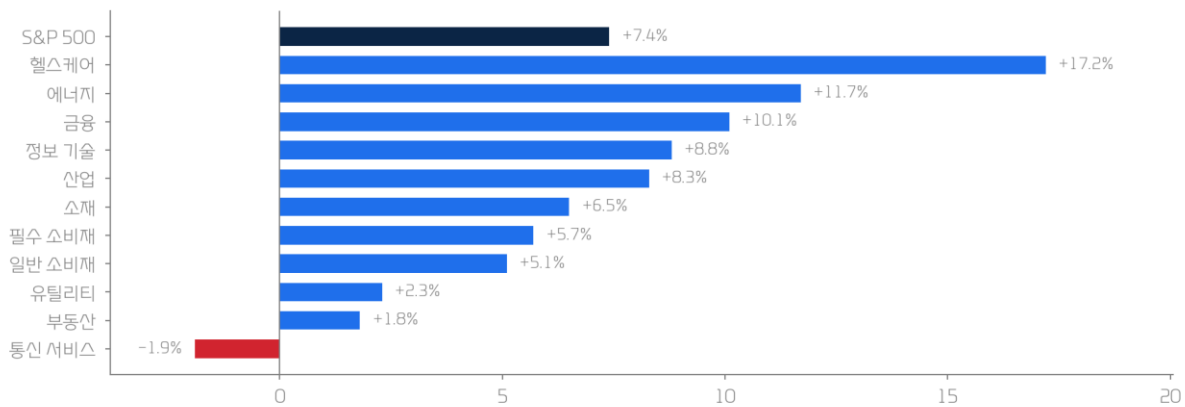
종목별 코멘트

티커	기업명	코멘트
ORCL	오라클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 매출이 121% 늘고 전체 매출도 193 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향후 매출로 잡힐 수주잔고(RPO)도 6,640 억 달러로 다시 늘었지만 이번에 새로 따낸 계약 규모는 300 억 달러대로 줄었다. 다만 실제 손에 남은 현금(잉여현금흐름)은 54 억 달러 적자를 냈고 연간 설비투자(CapEx)도 900 억 달러대에 달해, 앞으로도 돈을 계속 끌어와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3. 섹터별 실적 현황 (발표분)

발표분 기준 매출 컨센대비 3.3%, 영업이익 1.5%, 순이익 7.4%로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영업이익을 크게 웃돌며, 서프라이즈 상위 10 개 종목의 시총 합이 전체 발표 시총의 1.2%에 불과해 이 서프라이즈가 소수 대형주가 아닌 광범위한 종목군에서 고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에너지는 매출 컨센대비 15.6%로 전 섹터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42.2%/+117.1%/+148.1%)이 전분기(+35.6%/+104.9%/+136.9%)보다 가속화됐다. 통신서비스는 유일하게 순이익 컨센대비 -1.9%로 하회했는데 에코스타의 대규모 미스(서프라이즈 -15.4)가 이를 견인했고, 소재(-16.5%)와 유틸리티(-13.8%)는 영업이익 컨센대비에서 가장 큰 폭의 하회를 기록했다.

섹터별 컨센서스 대비 순이익 (% · 발표분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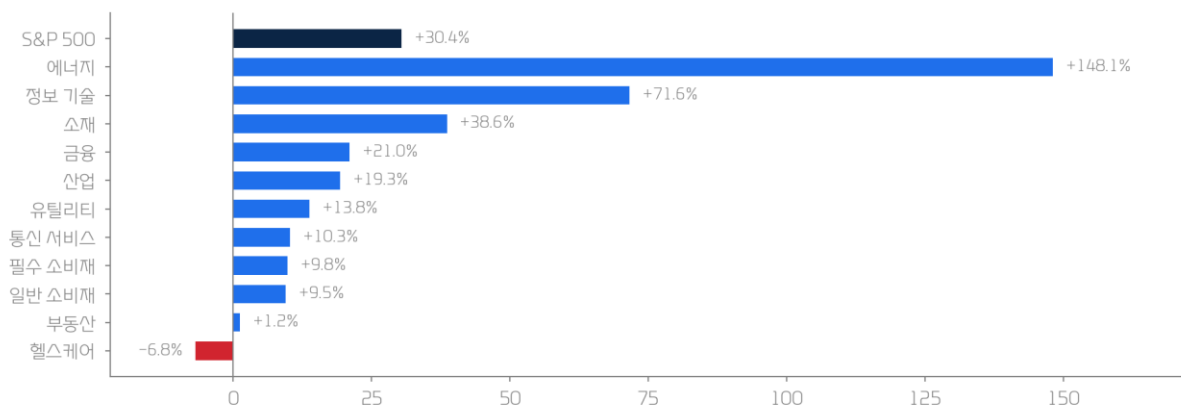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시즌 예상 (Blended)

Total 영업이익 컨센대비는 발표분 1.5%에서 블렌디드 5.3%로 크게 확대된 반면, 매출(3.3→3.2%)과 순이익(7.4→7.0%)은 거의 변화가 없다. 격차는 소재(-16.5%→+2.4%, 18.9%p), 에너지(-0.0%→+9.8%, 9.8%p), 부동산(-5.3%→+3.8%, 9.1%p), 금융(-1.6%→+6.6%, 8.2%p) 순으로 크다. 소재는 발표율이 96.0%(24/25)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데도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은, 마지막 미발표 1 개 기업의 실적 비중이 섹터 합계를 좌우할 만큼 크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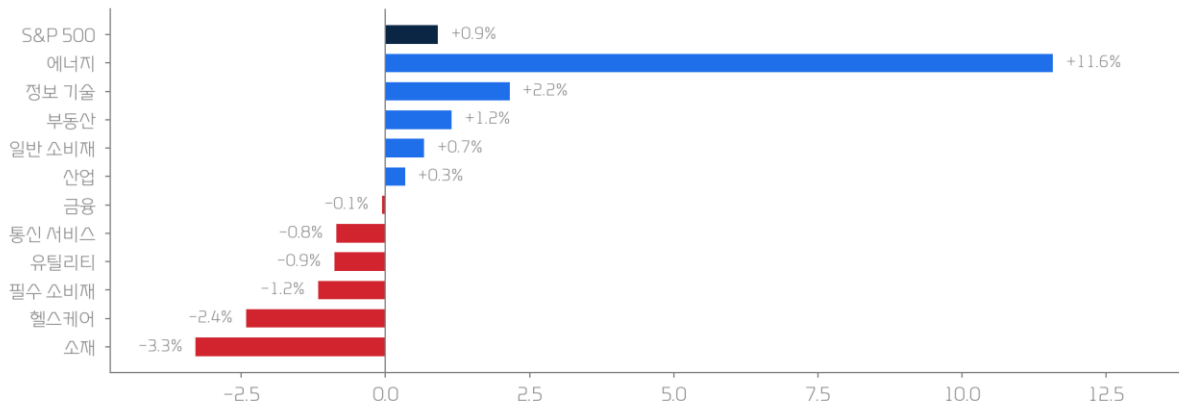
섹터별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 · blended)



5. FQ1 컨센서스 30 일 변화

FQ1 컨센서스 30 일 변화율은 에너지(매출+3.7%·영업+14.2%·순이익+11.6%)와 정보기술(+2.3%/+1.5%/+2.2%)이 가장 큰 상향 조정을 기록해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장 컸던 섹터와 겹치는 반면, 소재(-1.1%/-2.8%/-3.3%)와 유틸리티(-1.8%/-1.3%/-0.9%)는 하향 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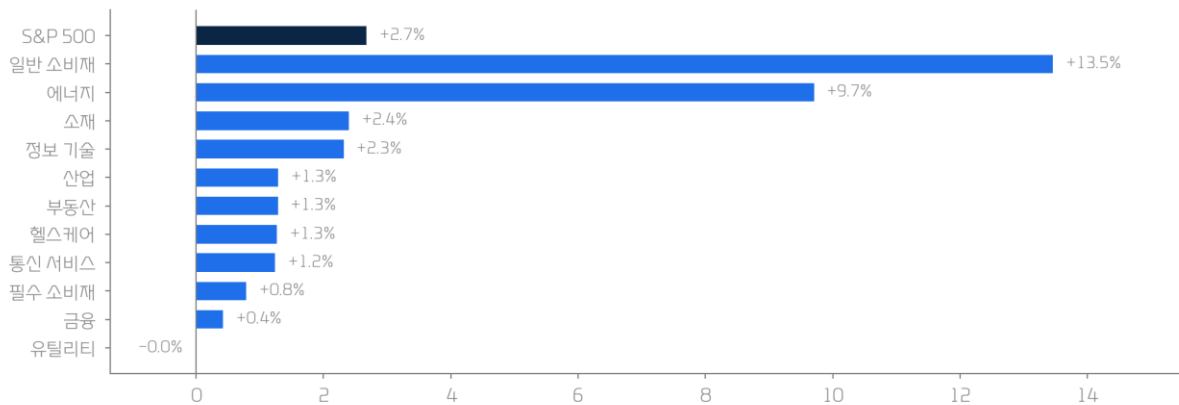
섹터별 FQ1 순이익 컨센서스 30 일 변화율 (% · GICS Level 1)



6. FY1 컨센서스 30 일 변화

FY1 기준으로는 일반소비재 순이익 컨센서스가 +13.5%로 가장 크게 상향됐고 에너지(+9.7%)가 뒤를 이었다. 소재는 FQ1 에서 하향 조정됐던 것과 달리 FY1 에서는 +2.4%로 상향 반전됐다.

섹터별 FY1 순이익 컨센서스 30 일 변화율 (% · GICS Level 1)



다음 발표 예정

발표일	티커	기업명	섹터	지난분기 EPS	이번 컨센 EPS
09/17	LEN	레나르	임의소비재	\$1.24	\$1.26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